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4년 6월
J Korean Acad Nurs Vol.34 No.3, 389-399, June, 2004

포스트모더니즘과 간호의 이슈*

공 병 혜[1)]

서 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1960년대 이후 데리다(Derrida), 푸코(Foucault), 리올타르(Lyotard) 등에 의한 프랑스 철학이 미국 등을 거치면서 1980년대부터 우리의 문화와 예술, 학문분야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형성한 사유의 흐름이다. 특히 우리 학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탈근대성'으로 번역이 된다. 이것은 문화와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사유의 틀로서 자리잡고 있었던 서구의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반성을 함으로서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사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러한 사유의 특징이 간호학문에서의 지식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지 비판적으로 반성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면 포스트모더니즘을 관통하는 사유의 특징은 무엇인가?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 언어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생물학, 심리학, 문화, 신화연구 등의 분과들이 다학제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유의 흐름은 특히 서구의 역사에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근대적(modern) 사유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이다(Yang, 1977). 근대적 사유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간 중심적, 이성 중심적, 남성 중심적, 주체 중심적 사유방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중심을 향해 모든 것을 동일화시키거나 혹은 전체화시키고, 타자를 배제하고 주체이외의 모든 것을 대상화하며, 거대 이론의 체계를 만드는 사유의 경향들을 말한다. 특히 데리다의 철학을 지칭하는 해체주의는 서구의 근대성이 지닌 중심적 가치관을 해체하여 분산시키는 사유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그의 해체주의적 전략은 지금까지 주변에 머물러 있거나 경계 밖으로 밀려나 타자화 되었거나 감추어져 있던 관념들을 들추어내어 그것들이 지닌 다양성과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성의 핵심가치들이 해체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에는 그 어떤 것도 중심에 속하지 않은 채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유의 방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한다. 이 시기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론들이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될 수 없으며, 혹은 하나의 이론이 그와 다른 이론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어 이론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사유의 물결은 198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처럼 간호 학문의 이론과 연구 영역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형성해 오고 있다. 과학중심적, 실증주의적 사유의 틀이 근대적 간호이론의 중심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동안 경계 밖으로 밀려나 감추어졌던 다양한 사유의 틀과 이론, 연구방법들이 차이를 드러내며 새롭게 출현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간호학문에서는 더 이상 간호지식을 획일화시키거나 전체화시키는 중심패러다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생의학적 모델에 기초한 실증 과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이 중심부에서 밀려나고,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접목이 일어나면서 차이와 다양성을 지닌 이론들과 연구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다.

주요어 :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성, 해체, 간호
* 이 논문은 2002년 조선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3년 6월 2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5일

또한 푸코의 철학을 칭하는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는 담론(discourse)으로서 구성된 지식의 체계를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연계된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해 주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의 사유는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담론의 체계로서 지식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철학은 그 시대의 권력이 지닌 규율에 의해 어떻게 지식이 통제되어왔고 또 재생산되는가를 추적함으로써 지식의 체계를 통해 은밀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핵심권력에 저항하고자 한다. 이러한 푸코의 사유는 근대의 핵심권력으로 출현한 기계론적 세계관과 실증주의가 간호지식을 어떻게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간호지식을 산출해 왔는가에 대한 시선을 제공함으로서 그 지식의 배후에 있는 핵심권력을 해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학문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적 사유의 중심가치가 해체되면서 다원주의적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맞이하여 근대간호학문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패러다임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체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지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이 시대의 간호학문의 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간호학문에서는 근대의 핵심 권력이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그동안 실증적 사유방식에 의해 은폐되어있던 간호의 심층적이며 폭넓은 돌봄의 영역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학중심주의로 인해 타자화 되었던 간호 영역에 대한 탐구가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한 타학문과의 교류와 접목을 통해 모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하고 차별적인 이론들과 연구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렇게 생성된 간호이론과 연구방법들 간의 서로의 차이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어떠한 중심적인 사고의 틀도 거부하는 개방적 사유방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유방식이 오늘날 간호이론과 연구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이 시대의 추세에 부합하는 간호학문의 필연적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 우선 해체주의와 권력과 지식과의 연계성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사유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근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간호이론과 연구방법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이 시대의 간호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포스모더니즘의 특징

해체주의

데리다와 푸코의 해체주의는 일반적으로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사와 지성사 및 정신사를 지배해 온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진리에 관한 중심 학설을 해체(deconstruction)하는 것이다. 특히 데리다의 철학이 해체하고 자한 것은 서구의 근대성(modernity)이 지닌 가치관인데, 그것은 1) 확실한 진리에 대한 믿음과 2) 인간 중심주의적 휴머니즘 3) 주체 중심적 사고 4) 역사와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Kim, 1997). 데리다는 바로 이러한 서양의 근대성이 지닌 가치관에 대한 해체작업을 자신의 텍스트 이론을 통해 전개시킨다. 그는 서양의 정신사를 하나의 책에 비유를 한다. 책이란 일정한 줄거리를 지니며, 중심을 향해 의미들이 체계적으로 모아지는 전체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책은 저자가 있으며, 저자의 영혼과의 대화이며, 또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책은 저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신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Kim, 1997). 이러한 책에 대한 관념은 곧 책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책의 문명으로서의 서양의 이성중심적 정신사를 지칭한다. 데리다는 바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 검은 글씨로 쓰인 책에 대한 관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백지 뒤에 숨어있는 '흰 글씨'로 된 새로운 그 무엇을 읽어낸 것이다. 거기서 그는 바로 서양 정신사라는 책 속에는 숨겨진 그리고 여백에 흰 글씨로 쓰여진 또 다른 사고의 논리가 숨쉬고 있음을 본 것이다. 그는 바로 텍스트(text)의 논리를 찾았던 것이다. 데리다는 텍스트의 논리를 통해 "모든 논리의 중심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사유의 논리"를 개발하였던 것이다(Kim, 1996; Kim, 1997).

그러면 이러한 책의 관념에 대한 해체전략으로서 데리다가 제시하는 텍스트의 논리란 과연 무엇인가? 책이 거주의 중심처가 있는 농경민족의 사고에 비유된다면, 텍스트는 마치 유목민족의 사고처럼 '중심'의 부재이며, '주체'의 부재이며 '저자'의 부재이다(Kim, 1997). 텍스트는 자기 안과 자기 바깥이라는 경계가 없다. 마치 유목민족처럼 삶의 중심처나 거주지가 없이 끝없이 여기와 저기의 차이와 교차하며 자기 안과 자기 밖의 경계나 다른 것과의 구획이 없이 짜여 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직물조직의 천처럼 두개의 상이한 날실과 씨실이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교차하며 짜여진 것과 같다. 거기서는 어떤 사물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차이를 지닌 다른 것과 접목이 일어나며, 또 다른 어떤 것의 보충과 대리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만이 존재한다. 텍스트는 말과 개념에 의한 중심적 사고를 거부하여 어떤 의미의 중심을 지니지 않으며,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진리의 개념을 불신한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주체가 되어 다른 것들

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포섭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각각은 밖을 향해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접목되면서 의미가 흩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Derrida, 1976).

텍스트이론에 따른다면 간호이론은 다양한 분과학문의 이론들, 즉 의학, 양자이론, 체계이론, 동시성 이론, 사회학, 인본주의 심리학 등과의 접목이 일어나서, 모자라는 것이 보충(la supplement)되는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산물인 것이다. 거기서 간호의 본래적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다른 것들과의 연쇄적 연관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생성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텍스트 이론의 특징은 이론이나 개념을 통한 의미의 중심을 향하여 동일화와 체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중심부가 해체되고 경계의 바깥으로 의미가 흩뿌려진다는 데에 있다. 이것을 데리다는 산종(dissemination)이라고 말한다(Derrida, 1976). 텍스트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만나 또 다른 차이를 끊임없이 생성해 내는 놀이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본래적인 것인가, 혹은 진리인가에 대해 결정론적인 입장을 지니지 않는다(Kim, 1997). 따라서 텍스트의 논리란 이 학문과 다른 학문, 이 이론과 저 이론, 진리와 비 진리를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포스트 구조주의-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칭해지는 푸코 철학이 지닌 해체주의 특성은 바로 서구세계를 지배해온 담론(discourse)들에서 숨겨진 이념과 그 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적해 보는 것에 있다.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담론이란 지식의 체계를 갖춘 일종의 언설로서 권력을 실천하는 방법이다(Lee, 1989). 푸코는 이러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각 시대마다 지식의 체계를 유통시키고 생산해 온 중심권력을 전복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각 각의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담론의 체계들, 예를 들어 정상과 광기, 병과 건강, 범죄와 법, 성에 대한 지식들은 바로 이 그 시대의 사회 정치적 효과를 지닌 권력-지식의 연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Yun, 1997). 이렇듯 각각의 시대에 유행하던 담론으로서의 지식체계를 지배하고 통제한 중심 권력을 분석하여 해체하는 전략이 바로 푸코의 계보학(genealogy)인 것이다. 푸코의 계보학은 특히 어떻게 도덕적 관념이 형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계보를 분석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의 방법을 빌려온 것이다. 계보학에서 그는 광기, 범죄, 성행위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관리와 통제를 소재로 하는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권력이란 특히 언어행위에 의해 상대방의 사고, 감정, 행위 등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단지 지식을 통제하고 억압할 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권력은 학교, 군대, 감옥, 병원 등과 같은 제도화된 장치를 통해서 개개인을 훈련,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인간 과학 지식의 체계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Yun, 1999).

특히 푸코는 서양역사에서 지식과 권력의 지배관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합리적 이성을 신봉하는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르조아 계급이 생겨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지적한다. "광기의 역사"에서 푸코(1991)는 이성중심주의적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섬세하게 추적한다. 그는 17세기에서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18세기로 들어오면서 광인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인도주의적 개혁이 도입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거기서 그는 그 시대에 정신병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고자한 목표가 인간성을 계몽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차원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신병원의 개혁은 수용자(광인)를 이성의 기준에 의해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구분하여 지식의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재교육하고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는 것이다. 19세기에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콩트에 의해 수립된 실증주의가 그 시대의 지배층이었던 부르조아 계급의 지식권력으로 등장하고, 실증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리학과 같은 인문과학이 발달하면서, 광기를 다루는 정신의학이 체계화되고 발달하게 된다. 거기서 푸코는 정신의학이 광인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객관화시킴으로서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비판한다(Foucault, 1991). 이렇듯 이성의 시대에서는 합리적 이성 중심주의의 지배 담론체계가 권력을 가지고 다른 담론체계를 억압해 왔던 것이다(Yun, 1999).

이러한 권력(power)과 지식(knowledge)의 계보학은 푸코(1994)의 "감시와 처벌"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특히 푸코는 모든 사회에서의 담론의 형성과 그것의 유통과 분배 그리고 소멸은 그 시대 행사하는 권력의 작용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있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모습은 배제, 억압, 검열하는 양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조 전체에 퍼져있어 적극적으로 개인을 구성하고, 대상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푸코는 18세기의 인간의 몸을 통제하고 금지하고 조절하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여 지식을 생산하였는지를 권력의 규율(discipline)이라는 성격을 통해 섬세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규율은 효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유지시키며,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시도되어지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18세기 후반에 감옥제도가 생겨나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규율적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권력이 지닌 규율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 군대, 감옥,

병원, 학교 등에서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조직화하는 기술을 통해 작용한다고 말한다(Yun, 1999). 권력을 지닌 규율이 동원하는 주요한 3가지 기술은 1) "위계질서적 감시"(hierarchical observation), 2) "규범화하는 제재"(normalizing judgment). 3) "검사"(examination)이다(Foucault, 2000). 푸코는 말하길

> 또한 이러한 규율을 근간으로 하여 권력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술을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수단이란 위계 질서적인 감시의 눈빛, 규범화된 제재로서 상벌제도, 그리고 이들을 이러한 권력의 특유한 방식인 시험을 통해서 결합시키는 방식 등이다 (Foucault, 1994).

우선 1) 위계 질서적 감시체계 속에서 한 개인은 항상 감시된다. 한 사회 내에서 관찰 가능한 네트웍이 형성되어 있어서 권력구조의 꼭 대기로부터 모든 방향을 향해 개인들의 행동들이 감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을 규율적 공간에 묶어두고 그들을 가시적으로 관찰하도록 만든다. 광학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감시의 기술은 권력의 효과를 생겨나게 하며, 동시에 "강제적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분명히 가시적으로 만드는 장치이다"(Foucault, 1994).

그리고 이러한 '위계 질서적 감시'의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 "규범화하는 제재"(la sanction normalisatrice)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의 모든 개체들을 비교, 분리, 계층화, 서열화 하고, 동질화시킨다. 또한 서열과 지위를 분명히 하여 승진, 진급을 통해 포상하거나 낙제시키고 서열을 매기거나 벌을 내리기도 한다. 이렇듯 학교, 감옥, 공장, 군대, 회사 등의 모든 장소에서 다양한 '규범화하는 제재'로서의 서열화와 그리고 상벌이 사용되는 실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푸코는 행위의 정상에 대한 이탈로서의 주의 태만, 태도에 대한 이탈로서 무례와 반항, 언어에 대한 일탈로서 수다와 건방짐, 신체에 대한 일탈로서 버릇없는 자세, 적절치 않은 동작, 불결함, 성에 대한 일탈로서 저속함, 음탕함 등을 예로서 들고 있다(Foucault, 1994).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은 바로 사회구성원을 정상화하고, 혹은 표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다.

또한 3) "검사"(examination)는 위계질서 속에서의 감시하는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시험은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법이다. 시험은 개인과 집단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축척하고 분류하고 체계화시켜 기록하고 관리한다. 시험의 방법이 효과적일수록 개인은 기술되고 분석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규범화된 제재와 검사를 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 객관화되어, 자료화가 이루어지면, 그 인간에 대한 이미지, 즉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육의 기술은 인간을 과학의 대상으로서 삼는 데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예를 들어 18세기 이후 병원은 빈민 구호기관에서 이제 환자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규칙적인 관찰제도를 통해 비교, 검토하여 지식이 형성되는 장소가 된다. 병원은 이제 의학이 지닌 규율적 권력의 적합한 장소이며, 의학이라는 권력이 지닌 규율은 오늘날 환자를 끊임없이 규범화하는 제재조치와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Foucault, 1994). 특히 이러한 검사에 의해 건강함, 정신분열증, 신체적인 결함과 같은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듯 권력(power)과 지식(knowledge)이 서로 연계되는 푸코의 계보학은 바로 그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지식을 생산해 내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가 지배계층, 국가가 소유하는 그러한 정치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전략적 상황을 포괄하는 사회 문화적 구조 곳곳에 있는 모든 관계의 그물 망 속에 편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Yun, 1999).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본 간호학문

지금까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해체주의라는 사유의 특성을 데리다의 텍스트 이론과 푸코의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들 사유의 특징들은 근대적 사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중심주의, 주체중심주의가 지닌 권력을 해체하는 데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의 사유는 한편으로 모든 것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중심 사유의 틀을 해체시키고 흩뿌려 놓음으로써 그것에 의해 숨겨진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유들의 차이를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그 시대의 지식을 통제하고 생산하는 핵심권력이 지닌 규율적 성격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근대적 사유의 틀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해체주의라는 사유의 특성이 과연 간호학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 우리는 간호학문에서의 근대적 사유의 틀과, 그것의 핵심권력이 생산하는 지식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시각이 오늘날의 간호학문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지를 반성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나이팅게일의 이래로 전개되어온 근대적 간호학문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적 간호학문의 특성

19 세기 나이팅게일 이래로 실무 위주의 간호가 학문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간호학문은 특히 20세기 들어서서 의학의 기계론적 인과론적 모형으로부터 간호의 실무와 이론 형성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간호학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 등에서 이미 확립된 이론에 접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간호이론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7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간호지식체의 개발에 있어서 실증주의에 기초한 실험적 방법 그리고 양적인 통계 연구방법은 간호학의 유일한 학문의 방법론처럼 여겨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간호학문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20 세기 초반이후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은 간호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당시 간호학에서의 연구는 사례연구형식이 1920년에 도입되어 40년도까지 주로 간호교육과 행정에 응용되었으나, 그 이후 1950 년대에 Peplau는 Sullivan의 정신의학이론에서 간호를 인간관계로 규정하는 최초의 간호이론을 개발하였다(Lee & Park, 1993). 그 이후 1960년대에는 인접학문, 특히 심리학 사회학 등의 영향을 받아 Henderson과 Halle의 욕구이론과 Orando의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한 간호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들의 이론들은 간호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찾아 이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거나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대인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1960년대 후반기에는 생물학자인 von Bertalanff의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보는 간호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Dickoff, James와 Wiedenbach는 실무과학으로서의 간호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논리실증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과학적 연구와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ee & Park, 1993).

1970년대 들어서면서 Johnson은 행위체계모델을 통해서 King은 인간에 대한 개방체계구조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간호이론들을 구축한다. 또한 Orem, Rogers, Roy, Newman의 이론들이 일반체계이론, 에너지장 이론, 생의 철학 등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발표되었다(Lee, Kim, Lee, Lee & Jeong, 2000). 특히 Rogers의 이론은 환원론적이며 기계론적인 인간이해의 방식에 근거한 간호이론을 비판하면서, 비환원론적이며, 통합적인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인간과학으로서의 간호학문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Fawcett(1984)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79년대까지 간호연구논문은 주로 논리실증주의에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자연과학적 방법이 경험과학에 적용된 실험연구와 상관성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따라서 양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물론 1960년대 사회학에서의 근거이론이나 민속기술지 접근법이 간호연구에 들어왔지만,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경향이 압도적인 까닭에 그것은 간호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간호이론들은 대부분 인접 학문인 심리학, 사회학, 물리학, 생리학 등의 이론인 욕구이론, 상호작용이론, 일반체계이론, 적응이론 등에서 연역된 것이거나 합성된 것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Fawcett, 1984).

그러나 70년대까지의 강력한 논리실증주의의 사조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이론들과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 70년대의 로저스는 '인간은 부분의 합이다'라는 특수구성론적 관점(particularistic point of view)과 환원론적인 인간이해와 기계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현상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을 거부하였다. 그녀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전체론적, 비환원주의적 관점에서 간호이론을 전개시켰다. 이러한 로저스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뉴만이나 왓슨 그리고 파시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Parse, 1987). 1980년대 이후로는 환원론적인 인간이해와 기계론적 세계관과 과학적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정신사조인 현상학, 실존철학, 사회심리학, 사회비판이론 등의 인문사회과학이 간호이론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인과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고 통계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간호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접근법, 근거 이론적 접근법, 비판이론, 문화기술지 그리고 여성주의 접근법 등이 다양하게 간호이론과 연구에 응용되었다.

해체주의적 시각에 의한 간호학문의 전개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간호학문의 전개과정을 통해 간호의 근대성을 특징짓는 핵심사유의 틀이 무엇이며, 그러한 틀이 어떻게 중심으로부터 해체되고 있는 지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간호학문의 전개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간호학적 지식체는 생의학적 모델을 빌려오거나, 다른 타 학문분야의 이론인 욕구이론, 상호작용이론, 일반체계이론, 적응이론 등에서 이론을 연역하거나 합성한 것으로 이루어졌다(Lee & Park, 1993). 이 시기에서 간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은 이론에서 연역된 가설을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확증이나 반증하는 것이다. 이때의 간호지식은 정신이나 심리현상 마저도 물리현상으로 환원하여 측정하고 인과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였으며,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수학으로부터 방법론을 도입하여 탐구되었다. 따라서 그 시기에 간호학문은 인과법칙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다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인간은 부분의 합이다'라는 특수 구성론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였다. 특히

특수 구성론은 인간을 신체, 정신, 사회적 요소로 나누어 보고, 또 각 요소에 대한 지식의 합으로 인간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닌다. 이때의 간호연구에서는 타학문에서 개발된 이론에서 가설을 연역하고, 그것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정당화하고 설명하려는 계량적 접근, 즉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이 지나면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이 간호학과 접목되면서 인간에 대한 전체론적(holistic)이며, 비환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간호이론과 지식탐구의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그렇다면 간호학문에서 근대성을 성격 짓는 핵심사유의 틀이 무엇이며, 그러한 틀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 지 살펴보자. 간호의 근대성은 서구에서 18세기 계몽주의에 힘입어 합리적 이성의 절대적 신뢰에 근거한 콩트의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영향을 입은 학문적 태도로서 특징지울 수 있다. 특히 간호의 근대성은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기초한 의학중심패러다임에 의해 종속되어 있는 사유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Mitchell, 1996). Lister(1997)는 근대적(modern) 간호는 18세기 계몽주의에 힘입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19세기의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일어난 자본주의라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간호의 근대성은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의학 중심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어 주로 실험과 상관성 연구, 통계적 조사 방법 등에 의한 실증 과학적 간호탐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Waston(1999)에 따르면 간호의 탈근대성은 바로 이러한 실증 과학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다. 즉 간호의 해체주의적 전략은 실증주의에 의해 검증될 수 없거나 통계적 수치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이나 개념으로 체계화되지 못하여 은폐되어 있는 영역을 들추어내는 전략이다. 이것은 바로 과학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심학문영역의 바깥으로 밀려난 돌봄-치유(caring-healing)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학문영역의 경계 밖으로 밀려났던 간호의 다양한 가치들이 다른 인접학문영역과의 접목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돌봄이나 안위제공, 공감이나 동정심, 신체 간호, 인간관계 등의 가치들이 현상학, 해석학, 사회비판이론, 여성주의 등의 인문학적 사유방식과의 접목을 통해 간호학적 지식으로 창조되고 있다. 근대적 간호학문의 특징이란 바로 탐구대상을 분석하고 수량화하여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적 탐구방법에 기초한 의학 -치료모델(medicine-cure-model)에 의존하는 데에 있다. 거기서의 간호이론은 경험과학의 실증주의의 방법에 따라 가설에 의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경험과 실험을 통해 확증되거나 반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탈근대적 간호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자연과학적 의학 중심주의라는 패러다임에 의해 소외되었던 돌봄의 가치나 안위제공. 신체간호, 지지, 공감 등의 돌봄- 치유모델(caring-healing-model)로 전환된 사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Watson, 1999).

그러면 간호학문에서 근대에서 탈근대로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근대적 간호학문에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한 '인간은 부분의 합이다'이라는 인간이해에 따른 생의학적인 질병치료 모델이 중심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로저스의 인간관은 이러한 근대적 간호의 중심패러다임을 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저스(1970)는 '인간은 부분의 합 그 이상'이며,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에너지 장'라는 총체론적인 인간관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생의학적 모델에 기초한 근대적 간호학문의 틀을 깨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 이후 뉴만(Newman)의 '확장되는 의식'으로서 건강에 대한 이해, 왓슨의 '초개인적 인간 돌봄'에 대한 이론, 파시의 '인간 되어감'으로서의 간호이론 등이 현상학, 실존철학 등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다. 특히 실존적 현상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왓슨(1988)은 돌봄의 과정에 대한 간호이론을 전개시키면서 인간 현존재, 건강과 아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인간 삶의 체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방법으로 현상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시(1981)는 인간을 건강을 스스로 창조하는 열려진 실존적 주체로서의 이해하고, 이러한 인간 삶의 실존적 의미발견을 위한 도와주는 간호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간호이론들의 새로운 등장은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생의학적 모델에 따른 간호의 중심패러다임이 해체되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Watson, 1995).

오늘날 간호학문에서는 다양한 세계관과 이론적 틀들이 각각 차이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 거기서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나 이론적 틀이 중심을 점유하고 다른 사유의 틀을 동일화시키거나 자신의 이론의 틀 안으로 체계화시키지 않는다. 특히 간호학문에서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에 근거한 생의학적인 모델과 모든 것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유기체론에 근거하는 일반체계이론 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증주의에 근거한 실험연구, 조사 연구, 통계분석 방법 등의 자연과학과 경험과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양적 연구방법론이 간호연구에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학문들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응용되고 있는 여성주의, 실존주의, 현상학, 비판적 사회이론, 인류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의 이론들이 간호이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적 연구로서 탐구될 수 없었던 건강과 간호의 의미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다양한 질적 연구의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실존적 주체로서 인간 삶의 체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실존적 현상학적 방법론, 사회적 행위로서의 인간 상호작용의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상징적 상호주의, 문화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삶의 체험의 구

조를 탐구하는 문화 인류학, 지식을 생산하고 규제하는 남성 중심적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서 여성주의 인식론 등의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론이 간호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양의 근대의 간호학문의 전개과정을 보면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다른 학문들에서 체계화된 이론들이나 방법론들이 간호현상과 접목되어 간호이론들로 합성되고 간호실무의 특성에 맞게 연구방법으로 응용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탈 근대적 상황에서의 간호학문은 간호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어떠한 체계적인 메타패러다임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즉 그것은 모든 이질적이며 다양한 요소들을 특정한 세계관에 근거한 하나의 간호이론의 체계 속으로 동일화시키는 시도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간호학문에서는 그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기계론적 혹은 유기체론적 세계관을 우위에 두지도 않으며 또한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 해체주의 시대에서는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 근거한 특정한 이론이나 연구방법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히려 서로 다양한 이론들이 어떤 체계적 틀 속에 갇혀서 동질화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각자가 지닌 특성과 차이를 드러내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로 본 간호이론

Reed(1995)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시선으로 간호이론의 발달과정을 바라보면 다음의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고 한다. 19세기 초 나이팅게일은 간호이론을 성립시키는 데에 어떤 정교한 추상화의 단계나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유추적 접근을 통해 건강과 간호에 대한 견해를 일반화시켰다. 그러나 나이팅게일 이후 반세기 동안 과학자 집단을 지배했던 실증주의 운동이 간호에 들어오면서 20세기 중반까지 근대간호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방법에 따른 검증절차를 거치며 간호의 이론을 형성하였다. 간호에서의 이론과 연구는 바로 경험에 근거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일반화시키는 절차적 방법과 도구들을 개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간호연구과정을 통해 간호이론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Peplau는 실무와 연구를 창의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간호과학이 "실무 과학"(science of doing)에서 "지식의 과학"(science of knowing)으로 이행하는 데 기여를 했다. 거기서 그녀는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을 통해 간호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추상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관계에 근거한 간호실무를 위한 간호이론을 창조해 내었다(Reed, 1995).

Dzurec(1989)에 따르면 이러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실증주의는 20세기초부터 1960년대까지 간호교육과 연구 그리고 실무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집단 내에서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실증주의는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지식을 배제하고, 지식을 통제하고 검열하며, 더 나아가 지식을 생산하는 권력의 기제로서 사용되어왔다는 것이다. 근대적 간호에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거의 유일한 과학적 방법인 것처럼 인식되어왔으며, 관찰과 실험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대상들을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시켰으며, 또한 자신들이 개발한 도구들에 의해 지식을 통제하고 검열하였던 것이다. 특히 실증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인 논리실증주의가 지식을 통제하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규율의 3가지 도구들은 푸코의 용어로 설명한다면 "시험"(examination) "표준적 제재" "위계적 감시"이다(Dzurec, 1989):

- 시험은 간호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과 특성을 대규모의 간호사의 집단 내에서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지식과 관련해서 학부과정에서는 객관식, 선다형, 그리고 에세이 시험이 사용되어지며, 박사과정생은 실증 과학적 간호 실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연구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논리실증주의 틀 안에서 간호지식의 핵심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표준적 제재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가해진다. 낙제, 학업과정에서 제명, 출판의 실패, 그리고 연구논문의 거절 등은 표준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경미한 처벌들"의 예들이다. 이러한 처벌들은 다른 학문분야에서처럼 간호에서도 논리실증주의의 기준에 따르기 위한 의도를 지닌다. 이러한 표준적 제재는 지식을 제한하여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가정에 대한 힘을 유지하는 데에 종사해 왔다.
- 위계적 감시는 간호의 모든 차원에서 일어난다. 간호의 하급과정에서 박사과정, 종합병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간호의 모든 영역이 감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위계적 감시는 학교에서의 간호교육, 병원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실무, 이와 연계된 간호연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가시화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 간호사의 활동이나 연구가 눈에 드러나며, 더욱 깊은 검열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Dzurec, 1989).

이렇듯 실증주의라는 권력이 지닌 규율의 3가지 도구는 간호의 전 영역에서 지식생산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지니고 있던 막강한 권력과 지식의 게임은 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깨지기 시작한다. 간호연구자들은 논리실증주자들이 지닌 가정들, 즉 기계론적이며 물질적인 세계관이 간호의 영역에 적용시키는 데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현상학과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근거되어있는 가정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내에 놓여 있는 연구의 초점은

일상적 삶의 체험이며, 이러한 영역은 논리실증주의에 의해 접근할 수 없는 간호의 폭넓은 영역인 것이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환원될 수 없어서 논리실증주의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개인으로서의 인간 삶의 체험과 의미 등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방식은 로저스의 일체론적 인간존재(unitary human being)에 영향을 받은 파시의 인간 삶 -건강에 대한 이론, 뉴만의 의식의 확장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견해, 패터슨(Paterson)과 제라드(Zderad)의 인본주의적 간호 등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 졌다. Parse(1987)는 인간에 대한 부분 총합패러다임(totality paradigm)에 반하여 이러한 간호연구자들의 인간과 환경에 대한 관점을 동시성 패러다임(the simultaneity paradigm)이라고 칭한다. 이렇듯 인간과 환경 그리고 간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연구방법으로서 특히 현상학적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Dzurec, 1989).

이렇듯 간호학문에서의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는 논리실증주의를 간호학문의 중심권력의 위치로부터 점차 물러나게 하면서, 현상학뿐만이 아니라, 해석학, 상징적 상호주의, 여성주의, 그리고 사회비판이론 등이 지닌 다양한 전제들과 연구방법들이 간호학문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다원주의 현상은 근대적 간호의 실증주의라는 권력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무너지면서, 간호이론과 연구영역에서 다양한 이론들과 연구방법들이 출현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호학문에서의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실증주의라는 권력의 영향이 근대간호학문에서의 지식의 유통과 생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한다. 특히 실증주의에 기초한 근대 과학의 발달은 의학의 분야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세균학의 발달은 병인론에 근거한 의학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다(Lee, 1995). 푸코의 포스트구조주의는 바로 보건의료전반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자리 잡은 근대의 의학적 지식이 관찰과 분석, 객관화와 일반화가 불가능한 여성 치유자, 간호제공자들의 경험적 지식을 학문의 영역에서 어떻게 배제하였는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Kim, 1999). 이것은 곧 그 시대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보건의료지식이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근의 간호연구의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Kim(2000)은 어떤 문화집단을 지배하는 건강에 대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여성의 억압의 문제가 여성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거기서 포스트구조주의 방법은 그 시대의 문화적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인 지배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여성들이 얻게 되는 질병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통제되고 배제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어떤 집단을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문화적 권력에 의해 남성 중심적인 의학적 지식이 생성되고 여성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배제되는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Kweon(2000)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담론에 의해 배제, 통제, 금지되었던 간호지식을 드러냄에 있어서 푸코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제도권 내의 간호학문을 지배했던 서구의 근대적 간호가 지닌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도교의 건강에 대한 담론에 기초한 간호지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론 (간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근대성이 지닌 핵심적 가치체계의 해체가 일어나는 탈근대적 사유의 흐름을 의미한다. 동일성보다는 차이과 다양성이, 주체보다는 타자가 강조되며, 통일적인 메타담론이나 형이상학적 전제가 해체되고, 차이를 지닌 다양한 지식체들이 공존하게 된다. 지금까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사유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근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호학문에서의 이론과 연구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지 고찰해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간호학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니는 의미를 반성해 보기로 하자. 1980년대 이전까지의 근대적 간호학문에서는 실증주의 과학관에 기초한 의학-치료(medicine-treatment) 모델에 의존한 간호이론들과 연구방법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로저스의 간호이론이 나온 이후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근대적 간호학문의 중심패러다임인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사유방식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학문영역, 즉 인문사회과학 영역으로부터 다양하고 이질적인 가치들이 간호이론과 연구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성의 핵심가치가 해체된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간호학문은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시켜 체계적인 간호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단일한 형이상학적인 전제나 통일된 메타패러다임을 거부한다. 그래서 Stevenson&Beech(2001)는 간호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포스모더니즘의 3가지 주요테마가 간호학문에 미칠 수 있는 위협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진리에 대한 단일한 기준이 상실된 간호의 지식은 국부적 지식이며, 일반화가 불가능한 다양한 실재성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좋다'라는 태도가 지배적일 수 있다. 2) 윤리적인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대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3)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항상 불확실성이 분열된 채 남아 있는 저항과 파괴의 철학이 될 수 있다(Clarke, 1996).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이슈는 중심패러다임의 단순한 파괴 그

자체로 머물면서, '어떤 것이 든 좋다'라는 무정부적 상태에 머물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간호학문을 지배했던 근대적 중심가치의 해체를 통해 가리어졌던 간호에 근원적이며 잠재적 가치들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고의 틀을 끊임없이 생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간호학문에서 해체주의가 지니는 의의는 중심사유의 틀이 다양한 이질적인 사유들을 획일화하고 전체화하려는 경향에 저항하면서 타자화 되어 경계 밖으로 물러나 있던 가치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각 각의 삶의 맥락 속에서 창조적이며 국부적이며 특수한 지식의 형태로 창조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과학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추론에 의해 객관적이며 보편적 타당한 지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간호의 지식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공동체 내에서 연구의 주제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식의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각각의 문화적 집단마다 차이를 지니는 삶에 유용한 실용적 지식인 것이다.

이러한 탈 근대적 사유를 통해 반성해 볼 수 있는 간호의 이슈는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모든 현상을 객관화하고 보편화시키려는 서구의 과학 중심적 사유의 독점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각각의 문화권, 집단, 개인마다 차별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의 다양한 실천적 가치를 드러내면서 간호의 근원적 가치에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여겨진다. 니체에 따르면 해체주의가 지니는 전망성은 바로 근대적 사유에 의해 은폐된 근원적인 것에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 있다. 따라서 서구의 역사 속에서 계몽주의 이후 합리적 이성의 발달에 따른 실증주의 사유에 의해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던 서구의 근대성(modernity)의 해체는 결국 과학중심주의라는 지배적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간호의 근원적 가치에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해체주의는 오로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간호의 잠재적이며 근원적인 가치, 즉 돌봄, 모성, 공감, 신체 간호, 양육, 지지, 위로, 안위 등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간호의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그것으로부터 다양하고 풍부한 새로운 지식들을 창조되기 위해서는 경험 과학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예술, 종교 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와 접목을 통한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간호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과연 오늘날 어떻게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되어 다양한 이론들로의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Donahue(1996)는 "간호는 가장 오래된 예술이며, 가장 새로운 전문직이다" 이라고 하였다. 인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간호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오는 간호의 근원적 가치들은 간호의 어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모성, 돌봄, 관심, 염려, 사랑, 양육, 지지, 안위, 공감, 동정심, 봉사, 신체적 접촉 등의 잠재적 가치들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가치들은 오늘날 실증 과학적인 절차적 방법에 의해 탐구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대화를 이용한 인간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며 간호지식으로 재발견될 수 있다. 즉 대화를 이용한 지식창조의 방법으로는 문화 기술지, 일상사 탐구, 자전적 연구, 담화분석, 근거 이론적 접근 등에서 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Rorty(1988)에 따르면 오늘날의 지식은 어떤 도그마나 이념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대화에서 오는 이해의 성실성과 사회적 연대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지식은 각각의 문화공동체의 삶에 유용한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지엽적인 문화 공동체나, 소규모의 담화집단 내에서 건강과 질병, 보살핌에 대한 체험, 여성들의 일상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진 인간상호간의 풍부한 대화는 간호지식이 생산되는 중요한 출처인 것이다. Kvale(1997)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생산된 포스트모던적 지식은 이야기적, 지엽적, 맥락적, 인간 관계적, 실천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식은 연구의 주체에 의해 구축되는 지식이 아니라, 대화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동의 산물인 것이다. 거대한 메타 패러다임이 해체되고 실증주의라는 핵심권력이 분산된 포스트 모던적 시대의 대화는 삶에 유용한 지식을 산출하게 하는 일종의 가치 지향적인 실천적 행위인 것이다.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간호학문의 태도는 단일한 중심 틀에 대한 해체와 저항의 몸짓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 은폐되었던 간호의 잠재적 가치들로부터 인간 삶에 유용한 새롭고 다양한 실천적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에 있다고 여겨진다. 궁극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간호학문에서 지니는 의미는 과학과 도덕, 예술과 종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과학적 지식 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신념, 도덕적 가치, 실천적 유용성,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 등을 모두 함축하는 열린 지식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References

Clarke L. (1996). The last post? Defending nursing against the post-modernist maze.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4*, 257-265.

Derrida J.(1976). *On grammatolog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onahue, M. P.(1996). *Nursing, The Finest Art. an Illustrated History*. St. Louis: The C.V. Mosby com.

Dzurec, L. C. (1989). The necessity for and evolution of multiple paradigms for nursing research: a poststructurist

Perspective, *Adv Nurs Science, 11*(4), 69-77.
Dzurec, L.C. (1995). Post-structuralist Science, In Anna Omery &Christine E. Kasper(Eds.), *In search of nursing science* (pp.233-244)), London: Sage Publication.
Fawcett, J. (1984). Rogers life process model. In *Analysis and Education of Conceptual Models of Nursing*. Philadelphia: F.A. Davis Co.
Foucault. M. (1991). *The History of madness,* translated by Lee, B.Y. Seoul: Ingansarang.
Foucault. M. (1994). *Discipline and punish.* translated by Oh, S. G. Seoul: Namam.
Kim, H. H. (1997). *Derrida's philosophy of destruction*, Seoul: Minymsa.
Kim, S. H. (1997). *Philosophy in destruction's period* , Seoul: Munhak &Jiseongsa.
Kim, N. S. (1997). An Attempt of reinterpretation on history of nursing and health care using Post-structural Method, *J Korean Acad Nurs, 27*(3), 531-540.
Kim, N. S.(2000). Gender and Illness through the analysis of patriarchal discourse, *Qualitative Research 1*(1), 75-94.
Kvale, S. (1997).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ranslated by Shin, K. L. Seoul: Hana-Medical science.
Kweon, B. S. (2000). A study of Discourse on Lae-Chung's Health Promotion, *Qualitative Research,1*(1), 121-130.
Lee, E. J. & Park, Y. S. (1993). Reflection on Nursing Methodology, *J Korean Acad Nurs, 23*(3), 453-466.
Lee, J. C. (1999). *Two face of the western medicine,* Seoul: Hanwool.
Lee, K.S.(1995), Rorty and taoism, *Philosophy and Reality*, Seoul: Chol Hak and Heonsilsa.
Lee, K, R. (1989), *Micheal Foucaut*, Seoul: Minymsa.
Lister, P.(1997) The art of nursing in a 'postmodern' context, *J Adv Nurs, 25*, 38-44.
Mitchell, D. P. (1996). Post- modernism, health and illness, *J Adv Nurs, 23*, 201-205.
Parse, P. R. (1981). *Man-Living-Health: A Theory of Nursing*, NY: A Wiley Medical Publication.
Parse, P. R. (1987). *Nursing science: major paradigm, Theories, and critiques*, Philadelphia: S. D. Saunders Company.
Reed, P. G. (1995). A Treatise on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Beyond Post-modernism, *Adv Nurs Sci, 17*(3), 70-84.
Rolfe, G. (2000). Research, Truth and Authority: Post-modern, *Perspectives on Nursing Science, 17,* 70-84.
Rorty, R.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gers, M.E. (1970). *An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basis of nursing*, Philadelphia: F.S. Davis Company.
Stevenson. C. & Beech, I. (2001). Paradigm lost, paradigm regained: defending nursing against a single reading of post- modernism, *Nursing philosophy* 2: 143-150.
Yang, Y. D. (1997).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In J. H. Park,(Eds.), *Stream of contemporary philosophy*, Seoul: Dongneok.
Yun, P. J. (1990). *Beyond Foucault and Habermas*, Seoul; KyoeboLee.
Watson, J. (1995). Postmodernism and knowledge development in nursing, *Nurs Sci Q, 8*(2): 60-64.
Watson, J. (1999). *Postmodern Nursing and Beyond*,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Postmodernism and the Issue of Nursing

Kong, Byung-Hye[1)]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llustrate the main stream of postmodernism which has influenced theory and research in the nursing science, and then to consider the meaning and value ofwhat the postmodern perspective has meant to nursing science in the 21st century. **Method:** Derrida and Foucaults philosophical thoughts that characterized postmodernism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ir major literature was studied. Based on their philosophy, it was shownhow Derrida's idea could be applied in deconstructing the core paradigm in modern nursing science. In terms of Foucault's post-structuralism, reinterpretation of the nursing science in relation to power/knowledge was completed. **Result:** Postmodernism created multiple and diverse paradigms of nursing theory as well as nursing research. This was accomplished by deconstructing the modernism of nursing science which was based on the positivism and medical-cure centralism. Specifically, the post-structuralist perspective revealed issuesaround the relationship of power and knowledge, which dominated and produced modern nursing science. Contemporary nursing science accepts pluralism and needs no unitary meta-paradigm, which can reintegrate multiple and diverse paradigms. **Conclusion:** In considering the issue of nursing science in postmodernism,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ostmodern thinking discovers and reveals diverse and potential nursing values which were veiled by the domination of western modern nursing science. These were motivated to create nursing knowledge by convers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ch can contribute to practical utilities for the caring-healing situation.

Key words : Postmodernism, Modernism, Deconstruction,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ng, Byung-Hy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K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8 E-mail: bhgong@mail.chosun..ac.kr